

잉크테크, 잉크 생산능력 월 20톤으로 증설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와 재충전 잉크 전문 제조기업인 잉크테크(대표 정광춘)는 2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안산의 잉크 제조공장의 설비를 증설했다.

생산설비 증설로 잉크테크는 이전 생산량의 2.5배인 월 20톤의 잉크를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월 100만개의 카트리지에 사용하는 잉크를 공급할 수 있는 설비이다.

잉크테크는 2002년 4월부터 잉크 제조시설 증설에 나서 잉크젯 프린터와 플로터(LFP)용 수계 잉크 제조설비를 구축한 것이다. 특히, 새로 추진하는 산업용 프린터(플로터)용 잉크 생산설비를 보강하고 생산면적을 확대하는 등 산업용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염료형과 안료형 잉크 뿐만 아니라 용제형 등 다양한 잉크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또 현재 연구개발하고 있는 섬유날염용(DTP)용 잉크, 전사잉크, UV잉크 등의 신제품 생산의 기본설비가 갖춰져 앞으로 산업용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잉크테크는 국내 1위의 프린터 잉크 제조기업으로 현재 100여개국에 연간 1500만달러 상당의 잉크를 수출하고 있다.

5월 결산법인인 잉크테크는 2002년 매출 291억원에 당기순이익 41억원을 올렸고, 2003년에는 430억원의 매출에 69억원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10/ 23 >